

퍼펙트 영어 저각재

11월 21일 수요일 오후 7시 경영관 L101

반대찍고 여총가자

안녕하세요. 여학생총회가 쏘아올릴 작은 공입니다. 현재 여소공은 총여학생회와 함께 여학생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총회는 총여학생회원이 모여 안건을 의결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입니다.

11월 15일 총여학생회 폐지 찬반 총투표를 요구하는 정회원 500명의 서명이 모여 19일부터 학생회 선거 투표기간에 총투표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발의부터 총투표까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15일 열렸던 중선거위원회에서 총여학생회와 여소공이 공문을 전달했음에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공문에는 총여학생회의 3차례에 걸친 대토론과 여학생총회 후에 총투표를 진행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묵살하였다는 것은 총여학생회와 총여학생회원 모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3차례에 걸친 총여학생회 주관의 토론회는 한 번의 토론으로는 절대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없다는 쌍방의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대의원장은 어느새 총대의원회 주관의 토론회 한번으로 논의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총대의원회 주관의 토론회는 총투표가 발의되기도 전에 진행되었으며, 총여학생회와 합의가 결렬되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도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적 문제에서도 총투표 실시에 대한 논의가 줄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발의자 중 500명 이상이 정회원인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 즉 심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정회원 발의자 명단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기 전에 총투표 실시를 공고했습니다. 사전에 약속했던 발의자 500명의 정회원 명단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고도 부착되어있지 않습니다.

19~21일 학생회 선거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근거 중 하나는 효율성이었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효율성을 근거로 준수해야 할 절차를 무시해가며 총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총여학생회칙상 최고의 의결 기구이자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론장인 여학생총회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총여학생회를, 더 나아가 6,000명의 총여학생회원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 총투표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모든 절차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주장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의 이전에 공고된 총여학생회원 간 논의 기회마저 무시하려드는 총투표 앞에서, 이미 삭제된 것 마냥 짓밟힌 여학생의 자치권을 회복하려면 총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에 공감해주시는 분들께서는 **폐지 찬반 총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주십시오.**

더불어 총여학생회원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학생총회에 참석해주십시오.** 저희의 목표는 200명이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여학생들이 모여 총여학생회는 누가 세우고 누가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여학생총회는 총여학생회를 이어나가기 위해 열리며 총여학생회는 동국대의 성평등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18년 11월 17일
여학생총회가 쏘아올릴 작은 공